

# 도, 상용차 미래안전 기술 확보 시동

### '상용차부품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 선정... 주행안전 기술 확보 등 통해 거점지역 부상

전북도가 상용차 미래안전 기술 확보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총 153억원이 투입되는 산업 통상지원부에서 지원하는 상용차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부 시스템산업거점지원사업 신규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관련 기사 7면>

'상용차부품 경쟁력 강화사업'은 상용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차량 주행안전 기술에 대응하고, 상용차부품 인증체계를 구축 및 지역 상용차업체에 기술확보지원 등의 기업지원을 추진해 국내 중대형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전북 지역이 미래형 상용차의 안전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근 4차산업 혁명에 따른 글로벌 상용차산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는 안전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자동긴급제동장치 시스템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상용차 미래기술인 군집주행을 실현하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선유지시스템(LKAS), 적응형순항제어시스템(ACC) 등 첨단전자보조장치(ADAS)에 대해 선진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2018년 준공 예정인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 내에 중대형상용차의 자율(군집)주행의 실현을 위한 필수 안



**대주코레스, 완주에 등지** 완주군과 전북도는 지난 19일 완주군청에서 대주코레스(주)와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주코레스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이다. <관련기사 10면>

전기술인 긴급시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해 주거나, 차선이탈을 자동으로 방지해 주는 장치를 국제안전규격에 부합하도록 평가하기 위한 '제동로봇, 조향로봇, 변속로봇' 등을 구축하고, 빗길 눈길위에서 차량의 주행안정성을 평가하는 '저마찰 시험시설' 등을 구축해 부품업체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된 부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주행 관련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취득하고, 해외인증기관과 협력해 그 동안

해외에서 수행하던 인증평가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상용차부품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기술 해소, 선진 부품 및 차량에 대한 분석, 상용차 부품 수출을 위한 절차서 분석, R&D 기획,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의 기업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19대 정부의 4차 산업경제 생태계구축의 키워드에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포함돼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

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선정된 '상용차 경쟁력 강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안전분야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돼 전북도가 그간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중대형상용차산업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전용 주행시험장에 국제수준의 미래부품 개발 및 인증체계를 확립해 국가차원의 높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전북 상용차산업을 이끌어갈 핵심부품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우수중소기업인 7개 부문 시상

### 도, 수상자에게 경영개선보조금 3400만원 지원

전북도는 19일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상패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우수중소기업인상은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도내 시·군과 경제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매출신장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선정한다.

올해는 고용창출 부문 (주)하이코리아, 매출신장 부문 '오켈케

이블(주)', 우수신제품개발 부문 '부미컴(주)', 지역발전공헌 부문 '시임당푸드(영)', 장수기업 부문 '신아출판사', 창업기업 부문 (주)피치케이, 경제단체 부문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영개선보조금으로 각 부문당 3,400만원을 지원하며, 도 기업지원 공모사업 가산점 유예, 지방세 세무조사 4년간 면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재용 기자

## 산촌생태마을, 평균 6000만원 ↑ 농외소득

### '전라북도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 방안' 정책 브리프 출간

전북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을 찾는 연간 방문객수가 15만4,000여명, 마을당 평균 6,00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귀산촌 인구는 508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이 전북의 산촌지역에 조성된 마을사업의 실태 파악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전라북도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정책 브리프를 출간했다.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전

북에 조성된 52개소의 산촌생태마을을 전수조사 한 결과, 산촌생태마을에 508명(마을당 9.7명)의 귀산촌 인구가 정착했으며, 산촌생태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마을당 연간 3,856명으로 분석됐다.

또한, 33개 마을에서 숙박시설, 식당,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균 6,00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의 비중이 72.4%, 식당 19.8%로 분석됐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모내기용 농업용수 공급량 충분

### 저수 가능량의 74.3%인 5억1200만톤 확보... 용수확보사업도 마무리

도내 농업용 저수지에 총 저수 가능량의 74.3% 확보로 모내기가 완료되는 6월말까지는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예년 평균치보다 많은 비가 내린 덕분에 도내 농업용 저수지에는 총 저수 가능량의 74.3%인 5억1,200만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했다.

4월부터 농업용수 공급이 시작되면서 도내 저수지 저수율(74.3%)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5월 현재 평년 저수율(80.8%)의 92%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작년 관정 및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봄 모내기 등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영농급수가 끝나는 9월말에 47.1%(평년 71.4%의 66% 수준)까지 떨어져 올해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평년 강수량보다 50mm 많은 388mm가 내렸다.

이와 아울러 가뭄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7억원(국비 39억원, 지방비 8억)을 투자, 지난해 9월부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가뭄대책 사업을 완료하는 등 만일의 가뭄에 대한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관정개발, 저수지준설, 간이양수장 설치 등 항 농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군과 합동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관정개발 142

개소, 저수지준설 19개소, 간이양수장 설치 8개소) 등 총 169개소를 선정해 용수확보 사업을 추진했으며,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는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자연 강우 외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답수, 퇴수저류 및 하천 유지용수 방류를 최소화 등 농업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현재 5억1200만톤 가량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올 이앙기 용수공급은 물론 기상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당분간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2015~2016년 가뭄을 경험삼아 물 아끼쓰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여름 '대학생 직무인턴' 모집

## 토지 및 지적공간정보 세미나

전북도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공공기관에서 현장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직무 인턴'을 6월 4일까지 95명을 모집한다.

'대학생 직무 인턴'은 대학생들의 취업무대를 도내지역으로 유도하고자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해 인턴 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는 대학생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대학생 인턴은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인턴수요 요청 공공기관의 실무부서에서 전공 관련 지식·기술 분야의 일을 맡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참여 학생은 인턴 근무기간 중 단체 산재 보험에 가입된다.

또한, 지정된 멘토와 함께 전공 고위사무를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지적제도 변화에 따른 창조적 연구풍토 조성과 제도개선 및 정보교환을 통한 지적행정의 발전과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지 및 지적공간정보 세미나'를 무주군 빨강치마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한 세미나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이태현 무주부군수, 송영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장과 시·군 공무원 및 지적측량수행자, 학계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공무원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최신 정보를 교환하는 등 화합의 시간이 됐다.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에서는 지적업무 수행하는 시·군 공무원들이 제출한 15건 중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편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에서 선정한 4편 등 총 8편을 발표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